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 (상편)

총만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

◆차례◆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배를 매며-----1쪽 (40문제)  
 성난 풀잎-----14쪽 (25문제)  
 어부사시사-----23쪽 (52문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40쪽 (54문제)  
 (서울, 1964년 겨울 / 모란이 피기까지는 / 차마설 / 단단한 고요 - 63쪽) (13문제)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생규장전-----69쪽 (55문제)  
 쉽게 씌어진 시-----99쪽 (40문제)  
 스노우맨-----113쪽 (8문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118쪽 (8문제)  
 저녁에-----122쪽 (7문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27쪽 (19문제)  
 (호질-----129쪽) (5문제)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제가야산독서당-----141쪽 (21문제)  
 황진이-----148쪽 (11문제)  
 나도 그들처럼-----156쪽 (2문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58쪽 (17문제)  
 (적벽가-----168쪽) (2문제)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주몽신화-----170쪽 (16문제)  
 공무도하가-----180쪽 (7문제)  
 찬기파랑가-----183쪽 (14문제)  
 청산별곡-----189쪽 (10문제)  
 경설-----193쪽 (1문제)  
 시조 세 편-----194쪽 (6문제)  
 사미인곡-----197쪽 (9문제)  
 어이 못 오던가-----201쪽 (8문제)  
 흥보전-----204쪽 (8문제)  
 만세전-----209쪽 (3문제)  
 내 여자의 열매-----212쪽 (3문제)

▶전체 정답-----215쪽

▶해설-----219쪽

(버전: 2020.03)

## 배를 매며 \_ 장석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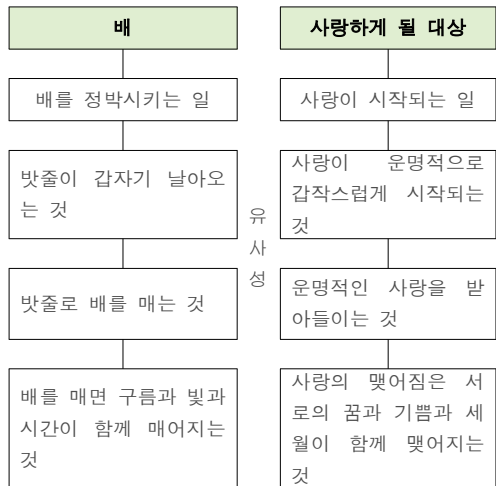
###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제재	배를 매는 일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유추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함. ②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함. ③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

### 작품의 구성

1연	우연히 배를 매어 본 경험
2연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4연	사랑에 대한 깨달음
5연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

### 핵심 1 유추의 전개 방식



### 핵심 2 시어의 의미

배	사랑하게 될 대상
빛줄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부딪가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구름, 빛, 시간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주변 환경)

### 핵심 3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사랑은-배를 매게 되는 것'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사색적인 어조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함.**

### 핵심 4 운율 형성 요소

•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맨다', '닿는다'  
 •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사랑은(이란)~~(는)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1-(1) 배를 매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낮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①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 소담고등학교 (세종)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랑에 빠진 설렘과 행복감이 드러나 있다.
- ②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는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 ④ 바다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배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 ⑤ 어구의 반복과 소재에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인제고등학교 (인천)

#### 2. 윗글의 화자가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은 배를 매듯 주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야.
- ② 온종일 사랑에 빠진 설렘과 기쁨을 걱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어.
- ③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의 주변 환경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 ④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 ⑤ 부둣가에서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거야.

### 인제고등학교 (인천)

####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서 사랑을 형상화한 방식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보기>

윗글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행위인 '배를 매는 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무음아 너는 어이 미양에 저뻐한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좇녀 돈니다가 늬 우일가 흐노라.
- ② 꿈에나 님을 불러 잠 일울가 누엇드니  
 새벽 달 지새도록 자규성(子規聲) 어이허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달오리.
- ③ 이런들 엇더하며 더련들 엇더호료..  
 草野愚生(초야우생)이 이려타 엇더호료.  
 흐물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태 므슴호료.
- ④ 집 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인들 못 안즈라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도다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⑤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날러 다 못 날러 불러나 푸뫼돈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 동탄고등학교 (경기)

#### 4. 윗글과 <보기>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 1-(1) 배를 매며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 ①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지적인 존재로 형상화하여 현실 극복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동탄고등학교 (경기)

#### 5.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천천히', '조용히'는 차분한 화자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부뚝가'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한 배경이다.
- ④ '잔잔한 바닷물'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화자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 동탄고등학교 (경기)

#### 6. 윗글의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공감하는지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조건>

- ㉠, ㉡ 중 하나를 골라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반드시 언급할 것.
- 화자의 깨달음에 대한 공감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것.
- 공감 여부에 대한 근거(자신의 경험 또는 유사한 사례)를 들어 서술할 것.

### 화흥고등학교 (경기)

#### 7. 윗글에 쓰인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는 사랑의 대상을 의미한다.
- ② '뱃줄'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의미한다.
- ③ '부뚝가'는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의미한다.
- ④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한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의미한다.

### 광주고등학교 (광주)

#### 8. 윗글에 사용된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그에 따라 <보기>의 ㉠ ~ ㉣의 함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한 후, 이를 근거로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보기>

- ㉠ 뱃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
- ㉡ 뱃줄로 배를 매는 것.
-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

<조건>

- 1. 완결된 문장을 갖추어 서술하시오.
- 2. 글(가)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을 제시하시오.
- 3. 2번 조건을 참고하여 ㉠ ~ ㉣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시오.
- 4.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 성난 풀잎 \_ 이문구

###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수필
성격	사색적, 교훈적
제재	풀독이 오른 경험
주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
특징	①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작품의 구성

처음	자연의 본성에 대해 인식함.
중간	풀독이 올라서 고통스러웠지만 병원을 찾지 않음.
끝	약을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독이 가라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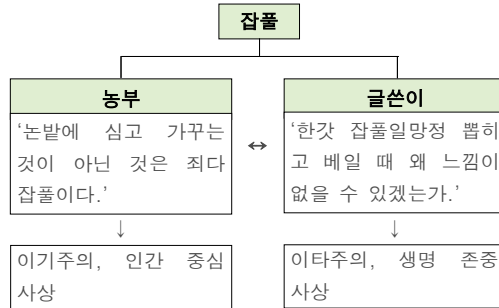
### 핵심 1 글쓴이의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	‘ ’는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은 필요가 없으므로 뽑고 베어 내야 한다고 생각함.	이기주의적 사고, 인간 중심적 사상
↓ 풀독이 오름.		
풀독이 오른 후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하려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나’가 풀독에 올랐음을 깨닫게 됨.	이타주의적 사고, 생명 존중 사상

### 핵심 2 ‘자연스럽다’의 의미

‘자연스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음.</li> <li>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함.</li> </ul>
---------	--

### 핵심 3 ‘잡풀’에 대한 농부와 글쓴이의 관점



### 핵심 4 글쓴이가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

잡풀을 억지로 뽑으려 했던 인간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풀독이 올랐음을 깨달음.

↓

약이나 주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 않음.

### 핵심 5 제목 ‘성난 풀잎’의 의미

성난 풀잎 :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二)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게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게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찔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은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별갈게 부르르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지어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떠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경문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농부'가 지닌 가치관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자연스럽다'의 의미와 대비된다.
- ② ㉡은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자란다는 의미이다.
- ③ ㉡의 '나'는 '농부'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한 모습이다.
- ④ ㉡은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 않은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은 '나'가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한 내용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경문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제목이기도 한 '㉣성이 난 풀잎'의 의미를 주제와 연관지어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반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제목에서 풀을 의인화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 ㉣ 고기잡이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연의 인정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 ㉤ 앞말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산문에 운문적인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동탄고등학교 (경기)**

4.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처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짊어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중에서 -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윗글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보기>에서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윗글의 ㉠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 <보기>의 ㉠은 후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과의 마찰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윗글의 작가가 병원에 가지 않은 것과 달리, <보기>의 작가가 세차장에 간 것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상반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 ⑤ 윗글의 ㉠과 <보기>의 ㉠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칠 권리와 인간에게 없다는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일깨운다.

**화홍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농부'와 '나'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부 : 나물이나 화초, 약초, 목초, 거름으로 쓸 수 없는 풀은 죄다 쓸데없는 잡풀이지요.
- ② 나 : 그렇다 하더라도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겠습니까. 느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 ③ 농부 : 모든 자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지요.
- ④ 나 :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 ⑤ 농부 : 앞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동물도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화홍고등학교 (경기)**

6. ㉠에 사용된 표현방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②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
- ③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랴.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다면' -
- ④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 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인제고등학교 (인천)**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인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대조적인 특성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제고등학교 (인천)**

8. 윗글의 '나'와 '농부'가 ㉠잡풀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농부'와 달리 ㉠의 입장에서 대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② '농부'와 '나'는 흑백 논리적 관점에서 ㉠을 파악하고자 한다.
- ③ '농부'와 달리 '나'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을 바라보고자 한다.
- ④ '농부'는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을 판단하고자 한다.
- ⑤ '나'는 ㉠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 어부사시사 \_ 윤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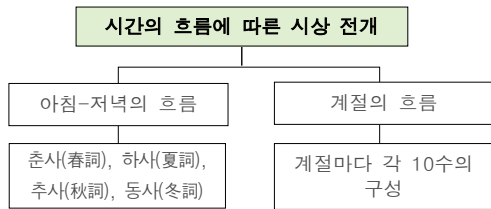
### 작품 개관

갈래	연시조(총 40수)
성격	풍류적, 자연 친화적
제재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흥취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대구법, 은유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③ 여음구를 배치하여 작품의 흥을 돋우고 내용에 사실감을 더함.

### 작품의 구성

춘사 1	강촌의 봄 풍경
하사 2	물아일체된 삶의 즐거움
추사 2	속세를 써나 사는 즐거움
동사 4	눈이 내린 후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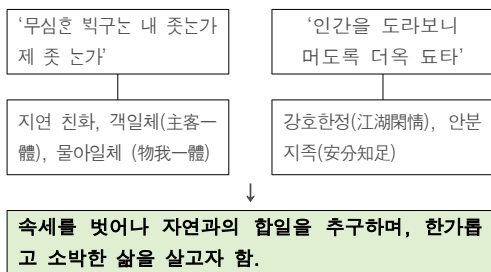
### 핵심 1 시상 전개 방식



### 핵심 2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

춘사	온갖 꽃
하사	연잎, 청악립, 녹사의
추사	가을, 살진 고기
동사	눈, 천첩옥산

### 핵심 3 시적 화자의 정서 및 삶의 태도



### 핵심 4 여음구의 역할

#### •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 '빅 떠라 빅 떠라' •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이어라 이어라'	출항에서 귀항까지 시상의 흐름을 보여 줌.
---	-------------------------------

시상의 흐름을 정연하게 나타내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

#### •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 를 나타내는 의성어 를 사용함.
---------------	---

-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함.
- 시적 화자의 흥취를 북돋움.
- 평시조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 시적 분위기를 살림.

<춘사1>

압개에 안개 짓고 뽕피회 희 비친다  
빅떠라 빅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낚물이 미러 온다  
至지芻國慮 총 至지芻國慮 총 於어思사馱와  
江강村촌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 뵈에 해 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낚물이 밀려온다  
강촌에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하사2>

년 님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닫드러라 닫드러라  
靑靑蓴약썩립은 써잇노라 綠綠蕪사依의 가져오나  
至지芻國慮 총 至지芻國慮 총 於어思사馱와  
無무心심흔 白백駒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랑 장만마라  
닫 들어라 닫 들어라  
대삿갓은 써 잇노라 도롱이 가져오나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추사2>

水滸國국의 2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인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긱지 容용與여호자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人人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물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었다  
맞 들어라 맞 들어라  
만이랑 맑은 파도에 실컷 안겨 보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동사4>

간밤의 눈썹 後후에 景景物물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만頃경疏류璃리 뒤희는 天천疊疊玉옥山산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仙仙界계ㄴ가 佛佛界界ㄴ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간밤의 눈썹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유리 바다 뒤에는 첩첩 흰 산  
신선 땅 부처 땅인가 인간은 아니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압개에 안개 것과 뒤희희 히 비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강촌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나)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선계나가 불계나가 인간이 아니로다

(다) 슈국의 구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당파의 슬쿠지 용여허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라)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은 씨 잇노라 녹사의 가져 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헌 ㉠빅구논 내 좃논가 제 좃논가

- 윤선도, '어부사시사'

**소담고등학교 (세종)**

1. (가) ~ (라)를 계절의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나) - (다) - (가) - (라)
- ④ (나) - (가) - (다) - (라)
- ⑤ (다) - (라) - (가) - (나)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 ②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물아일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④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학문 탐구를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 ⑤ 화자는 취미로 고기잡이를 하는 낭만적인 풍류객으로 볼 수 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3. 다음은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서술하십시오.

'어부사시사'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 ㉠ )을/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장과 중장 사이의 ( ㉡ )은/는 ( ㉢ )을/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 계절 안에서도 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중장과 종장 사이의 ( ㉣ )은/는 ( ㉤ )을/를 나타내며 모든 수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② 대구, 반복 등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우리말과 한자어의 세련된 혼용이 두드러진다.
- ④ 정형시의 규칙적인 운율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⑤ 중장-종장 사이의 여음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의 ㉠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白鷗(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名區勝地(명구승지)를 어디어디 별였더냐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라라.

- ② 池塘(지당)에 비 뿌리고 楊柳(양류)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고.  
夕陽(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는구나.
- ③ 山前(산전)에 有臺(유대)하고, 臺下(대하) 有水(유수)로다  
떼를 지어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어찌하여 皎皎白鷗(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는고.
- ④ 山頭(산두)에 閑雲(한운)이 起(기)하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  
飛(비)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일생)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⑤ 紅塵(홍진)을 다 떨치고 竹杖芒鞋(죽장망혜) 잡고 신고  
瑤琴(요금)을 빗기 안고 西湖(호)로 드러가니  
蘆花(노화)에 때 만흔 갈매기는 내 벗인가 하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사(春詞) 2

압개에 안개 짓고 뒤희희 히 비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강촌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묘타

하사(夏詞) 2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은 씨 잇노라 녹사의 가져 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흔 백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추사(秋詞) 2

슈국의 7 올히 드니 고기마다 솔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당파의 ㉣슬코지 용여허사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묘타

동사(冬詞) 4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선계나가 불계나가 인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모락고등학교 (경기)**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시조의 형식으로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이 드러나 있다.
- ② 시간의 흐름 즉, 계절의 변화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시조의 3음보 형식을 따르고 있어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
- ④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며 물아일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대구법, 은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춘사2에서 계절을 짐작하게 해 주는 시어이다.
- ② ㉡ : 고기 잡을 때 부르는 어부들의 감탄사이다.
- ③ ㉢ : 시적 화자가 물아일체를 느끼는 대상이다.
- ④ ㉣ : '실컷, 마음껏'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 ⑤ ㉤ : '수없이 겹쳐 있는 눈 덮인 산'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8. ㉣를 <조건>에 맞게 현대어로 풀이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현대어에 맞게 맞춤법, 단어 형태를 변화시켜 쓸 것.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9. 윗글의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吟風弄月(음풍농월)    ② 安貧樂道(안빈낙도)
- ③ 杜門不出(두문불출)    ④ 物我一體(물아일체)
- ⑤ 煙霞痼疾(연하고질)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_ 박태원

### 작품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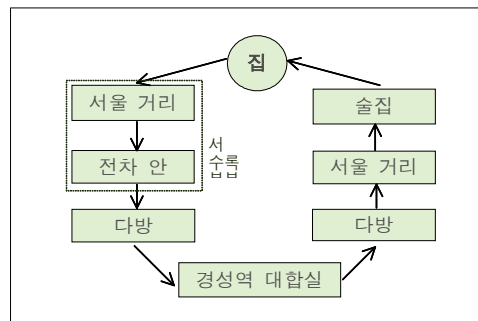
갈래	현대 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심리 소설
성격	심리적, 관찰적, 묘사적
배경	• 시간: 1930년대의 어느 날 • 공간: 서울 시내
주제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특징	① 특별한 줄거리 없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됨. ②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성임. ③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줌.

### 작품의 구성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구성됨.

(‘종로 네거리 → 화신 상회 → 전차 안’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

집	집 밖으로 외출함.
천변 길	두통을 느끼고, 왼쪽 귀의 기능에 대해 생각함.
종로 네거리	시력 이상을 느끼며, 안과에 갔던 일을 떠올림.
화신 상회	아이와 함께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함.
전차 안	고독에 대해 생각하고, 우연히 맞선을 본 여인을 보고 결혼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함.
다방	욕망과 행복에 대해 생각함.
경성역 (대합실)	고독과 슬픔을 발견하고 황금과 물질에 대해 생각함.
다방	신문사에 재직할 친구를 만남.
다료	여인과 차를 마시는 청년을 보며 질투와 고독을 느낌.
거리	고독과 권태 이상의 애처로움을 느끼며 동경 유학 시절의 연애에 대해 떠올림.
광화문 거리	우연히 만난 벗의 조카에게 수박을 사 줌.
카페	술을 마시며 정신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함.
종로 네거리	결혼과 소설 쓰기에 대해 생각하며 집으로 감.
집	집으로 돌아옴.

### 핵심 1 사건 전개 방식



- ‘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이라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음.
- 인과 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짜임이 아니라 단편적인 의식들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전개됨.
- 여로형 구성, 원점 회귀형 구성을 보여 주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을 사용함.

### 핵심 2 서술상의 특징

의식의 흐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한 채 등장인물의 의식,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기를 전개함.</li> <li>•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들을 그대로 포착하여 서술함.</li> <li>•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외부적 사건보다 그것을 계기로 떠올리는 생각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룸.</li> </ul>
-----------	---

### 핵심 3 시점의 특징과 효과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줄어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줌.</li> <li>• 서술자와 인물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줌.</li> </ul>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읍쇼 -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 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

다……. <중략>

###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답만,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 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원주고등학교 (강원)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장면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 위주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서술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의 발걸음을 따라 공간을 이동해 가는 여로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잦은 심표의 사용으로 주인공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과 섬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주인공이 보고 들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원주고등학교 (강원)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새로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 서술되는 공간이다.
- ② ㉡ : 경성 시내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구보의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다.
- ③ ㉢ :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을 드러내 주는 소재이다.
- ④ ㉣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시점에 동화되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 소심하고 내성적인 구보의 성격을 간접적인 제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원주고등학교 (강원)

3.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930년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당시 경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도시 문명의 영향 아래 탄생하게 된다.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여준다. 당시의 경성은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지식인들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전차'는 근대화 되어가고 있는 경성 시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재이군.
- ② 구보가 하루 동안 배회하는 경성시내는 도시 문명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군.
- ③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는 구보는 당시 지식인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인물이군.
- ④ 구보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여자'는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비인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⑤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구보의 모습은 목적을 상실한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소담고등학교 (세종)

4. 위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는 동경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작가지만 결혼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사고 있다.
- ②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 ③ 구보는 맞선을 본 여자를 우연히 전차에서 보게 되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 한다.
- ④ 화신 상회에서 구보는 자신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있는 젊은 내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질투하고 있다.
- ⑤ 다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배회하던 구보는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로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 소담고등학교 (세종)

5. 위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1. 작품의 주제를 제시할 것.
- 2. 작품에 쓰인 서술 방법을 언급할 것.
- 3. 작품에서 드러난 문체상의 특징을 언급할 것.

### 1-(1) 배를 매며

1.⑤ 2.③ 3.① 4.⑤ 5.⑤ 6.나는 ㉠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에 공감한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이생규장전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그러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② 8. 배를 매는 일에서 유추하여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 사랑이 갑자기 시작됨, ㉡은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임, ㉢은 사랑은 그 세계를 둘러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제로 전달하고 있다. 9.① 10.④ 11.⑤ 12.③ 13.① 14.② 15.⑤ 16.② 17.② 18.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뜻한다. 19. ② 20.④ 21.⑤ 22.② 23.배를, 것 24.④ 25.⑤ 26.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온종일을 떠 있다. 27.⑤ 28.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 29.① 30. ② 31.⑤ 32.③ 33.너에게 편지를 쓴다. 34.⑤ 35.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과 사물, 시간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36.⑤ 37.④ 38.③ 39.⑤ 40.운명적 사랑으로 설레고 있다.

### 1-(1) 성난 풀잎

1.① 2.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3.④ 4.④ 5.⑤ 6.① 7.⑤ 8.② 9.⑤ 10.② 11.① 12.③ 13.② 14.③ 15.생명 존중의 태도 16.② 17.④ 18.② 19.④ 20.⑤ 21.② 22.③ 23.② 24.④ 25.인간의 이기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반성

### 1-(2) 어부사시사

1.② 2.④ 3.㉠ 여음구, ㉡ 출항부터 정박까지 과정, ㉢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 4.⑤ 5. ② 6.③ 7.② 8.인간 세계(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9.③ 10.① 11.⑤ 12.(1) ㉠비 떠라 비 떠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이어라 이어라 (2)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3) 작품 내용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인다. 흥취를 돋운다. 사실성을 높인다 등 13.④ 14.㉠ 각 수에서 변화되어 나타남 ㉡ 노 젓는 소리 15.④ 16.① 17.⑤ 18.⑤ 19.A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 B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과 20.㉠ 연시조 ㉡ 안분지족(안빈낙도) ㉢ 두견, 백조

21.④ 22.④ 23.(나)는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으며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다. 24.③ 25.④ 26.① 27.① 28. ⑤ 29.① 30.㉠ 사계절을 다루고 있으며,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에 걸쳐 노래한 연시조이다.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과 흥취 31.③ 32. ⑤ 33.⑤ 34. (1) 가을 강의 자연을 즐기며 낚시를 하고 있다. (2) <보기>는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A]는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흥을 돋운다. 35.②③ 36.㉠ 시조 ㉡ 여음구 ㉢ 배의 출항에서 귀항까지 37.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추구한다. 38.⑤ 39.② 40.⑤ 41.⑤ 42.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다. 중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을 지키는 규칙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다. 43.① 44.④ 45.온갖 고지, 년닙, 청약립, 녹사의, 7울, 고기마다 슬져 인다, 눈, 천텃옥산 46.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다, 중장의 첫 구의 시작이 3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다. 47.⑤ 48.④ 49.④ 50.⑤ 51.④ 52. (1) 운율을 형성하는 (2) 비 떠라 비 떠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이어라 이어라 (3)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

### 1-(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② 2.② 3.④ 4.④ 5.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을 의식의 흐름기법과 현재형 어미, 만연체 문장, 심표의 잦은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6.④ 7.⑤ 8.(1) 의식의 흐름 기법 (2)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 관계 없이 구보의 관찰과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게 한다. (3) 1930년대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했던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함을 제시한다. 9.④ 10.⑤ 11.② 12.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만연체의 문장이다. 잦은 심표를 활용한다. 13.① 14.① 15.⑤ 16.① 17.③ 18.④ 19.④ 20.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21. 의식의 흐름, '사실, 여자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는 드물게 어여뻐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와 같이 여자에 대한 의식을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고 있다. 22.② 23.④ 24.⑤ 25. (1) 만연체 문장과 잦은